

2010년 4월 6일 (화) 계시 <말씀의 반석위에 우뚝 서라(100218)> 심주영

안녕하십니까. 서울 희망교회 심주영입니다.

2010년 2월 18일 철야기도 할 때 수요예배 선포된 휴거말씀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받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의 휴거의 비밀에 대해 밝히었다. 어때. 속 시원하지.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말씀, 오직 나만이 풀 수도 인봉할 수 있는 것이다. 억지로 푸는 자 다 망하였다. 순리적으로 역사하여 그에 따라 말씀도 나가는 것이다. 말씀의 주인공인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느냐. 오직 나의 나됨을 믿고 따른 자 복이 있도다.

이 섭리사 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 이 재림의 역사 끝에 휴거의 비밀을 알리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느냐.

참으로 하늘의 역사는 오묘하고, 신비하고 정확하며 인간의 심사로는 다 깨달을 수도 없는 비밀의 역사이다.

이 비밀은 오직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공개된다. 내 비밀을 푼 자 그는 내 사랑의 증표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고,

내 말씀의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아라. 내가 있는 곳 천국에서 이 지상까지 흘러가는 말씀의 방향이 곧 내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이로다.

내 사랑 받는 자, 내 말씀도 받는다. 깨닫는다. 믿는다. 그대로 행한다. 정녕코 그 말씀 이론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 배웠지. 내 말씀은 안다고 해서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절대 듣고 믿고 깨달아야 한다. 그 마음 밭 깊숙이 심어 두는 자, 절대 사탄이 쪼아 먹지 않는 곳에 나와 내 말씀을 감추어 놓은 자에게는 천국이 멀지 않다. 내 사랑도 그 안에 머문다. 결국 역사를 이루게 한다. 이 말씀은 이 지구상에 선포된 말씀 중 최고의 말씀이니라. 가장 수준 높고, 차원 높고, 완성도 높은 최고의 인봉이 풀리는 말씀을 너희는 들은 것이다.

그러니 한두번 보고 끝내서 되겠느냐. 나의 재림 맛을 자들이라면 매일 이 말씀 정독하며 나의 재림 맛을 준비 하라.

재림의 휴거, 휴거의 부활, 부활의 변화, 변화의 너의 사랑, 너의 사랑에 말씀에 대한 가치성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의 가치를 누가 먼저 깨닫느냐에 따라 너희 구원의 급이 좌우가 될 것이다. 도전 하여라.

너희 육신 쓰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로다. 이때 이 기회 잡아 나와 만나 사랑 나누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최고의 축복 받은 자 평생 보람을 누릴 자들이다. 지금 말씀의 축복의 때에 우리 멋있게 말씀 이루며 역사 이뤄보자꾸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나, 인자(人子)는 기대하며 기다린다.

이 말씀의 싹을 누가 제일 많이 키워 풍성히 열매로까지 맺을지 설레어 쳐다보니 이 눈길 실망의 눈물로 물들이게 말고 기쁨과 보람의 눈물 흘리게 해다오.

섭리사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듣는 자들이니 믿는다.

너희 선생으로부터 선포된 이 말씀 정녕코 진실이며 내 말이니 의심 말고 다른 생각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의 반석위에 우뚝 설 지어다.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내가 잡고 가니 천년 영원히 영영하리라. 믿느냐.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됨을 보이리라.

사랑한다. 너의 주 예수가.